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0.(금) 13:00 배포 2026. 11. 19.(목) 16:00

국가AI전략위, 전남광주서 '국산 NPU, 조선 AX, 국가AI컴퓨팅센터' 정책현장 방문

- 하정우 부위원장, 국산 NPU 기업들과 '국산 AI 반도체 기업 간담회' 갖고 검증·실증·판로 확대 방안 논의
- 'K-AI 풀스택 TF'와 연계해 국산 AI 모델·NPU 결합 실증 활성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 속 국산 NPU 적극 지원 의지 밝혀
- HD현대삼호 방문, 조선산업 AX 확산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정책 지원방안 논의
-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건설 현장 찾아 추진 상황 점검... AI 데이터센터 전후방 산업 연계 강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11월 19일(목)부터 11월 20일(금)까지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영암·해남 일대의 AI 정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전남광주를 메모리 팹 4기가 들어서는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8월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서 서남권을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키우기로 한 데 발맞춰, 국산 AI 반도체와 AI 인프라, 조선 AX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광주] 국산 NPU 기업들과 '국산 AI 반도체 기업 간담회' 개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국산 AI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가 추진 중인 '한국형 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이하 'K-AI 풀스택 TF')의 일환으로, 국산 AI 반도체부터 AI 모델·서비스까지

이어지는 K-AI 풀스택 생태계를 지원하고 국산 NPU의 검증·실증·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위원회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분과장과 이동수 위원을 비롯해 국산 NPU 기업 7개사*와 과기정통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마이크로소프트·AWS코리아, 한국 넷앱 관계자가 참석했다.

* (서버용) 리벨리온, 퓨리오사AI, 하이퍼엑셀, 디노티시아 / (엣지용) 딥엑스, 모빌린트, 엣지에이아이

간담회에서는 AICA가 TTA와 함께 마련 중인 NPU 검증센터, 과기정통부와 기획 중인 NPU 전용 컴퓨팅센터, MS·AWS와의 인증·판로 협력 등 국산 NPU 관련 사업을 공유했다. 이어 기업들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과 초기 도입 레퍼런스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수요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AI 반도체 성능지표 'K-Perf'를 활용한 검증 협력과 함께, K-AI 풀스택 TF와 연계해 국산 AI 모델과 NPU를 결합한 실증 사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AI 반도체 경쟁력은 칩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검증되고 쓰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최근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리더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국산 NPU에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AI 풀스택 TF를 중심으로 국산 AI 모델과 NPU가 함께 검증되고, 공공과 민간 현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영암] HD현대삼호 방문, AI·로봇이 바꾸는 조선산업 AX 현장 점검

이튿날인 20일(금)에는 영암군 소재 HD현대삼호를 방문해 AI 용접로봇 등 자동화 설비가 적용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AI 자율운영 조선소 구현을 위한 현장 데이터 활용과 AI·로봇 기술 실증 확대,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 개발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위원회 산업AX·생태계 분과위원과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HD현대삼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AX 확산을 위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AI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및 핵심 설비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조선산업은 고위험·고강도 작업과 숙련인력 부족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피지컬 AI를 통한 생산현장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조선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현장 데이터 활용과 기술 실증, 제도적 지원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건설 현장 찾아 AI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

마지막 일정으로 해남 솔라시도의 국가AI컴퓨팅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민관 합작법인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KOACC)와 삼성SDS로부터 추진 현황을 들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약 2.5조 원을 들여 수전용량 40MW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준공 후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이어 전력·용수 확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근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방안도 논의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는 지능을 생산하는 ‘토큰 팩토리’이자, 반도체·전력·냉각 등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며, “특히 전력·냉각 기자재 등 소부장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국산 기술이 데이터센터 현장에서 실적을 쌓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며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국산 AI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조선 현장에서 확인한 피지컬 AI는 각각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흐름”이라며, “이번에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해, 반도체에서 데이터센터, 산업 현장 AX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인프라지원팀	책임자	팀 장	민자영 (02-2224-4181)
		담당자	사무관	김중훈 (02-2224-4183)
		담당자	전문관	안동규 (02-2224-4186)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